

불교의 맛과 멋 카툰으로 즐겨요

‘만만한 뉴스’ 어라·배중훈·김동범·양경수 작가의 ‘만두전’

아기 부처님이 관수를 하는 장면은 언뜻 보면 귀엽기만 한 카툰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물은 깨끗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심오함이 담겨 있다. 또한 천안제일 아나올은 근사한 양복에 선글라스를 끼고 안 내건을 끄는 신사로 등장하고, 바다를 낚는 낚시꾼은 낚시에서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계의 조화를 보여준다. 여기에 각 나라의 다양한 스님의 모습이 어러라는 캐릭터로 새롭게 탄생하니 빙긋이 미소가 지어진다.

카툰으로 불교를 알려주는 만만한 뉴스가 봉녕사 사찰음식 축제를 찾아간다. ‘만.두(만-DOO)전(展)-맛있는 불교’가 9월 17일~10월 4일 수원 봉녕사 소요상장 1층에서 열린다. 만만한 뉴스 어라, 배중훈, 김동범, 양경수 작가의 각각 다른 개성을 보여 줄 이번 전시는 제6차 봉녕사 세계사찰음식 대항연에 맞추어 진행되는 만큼 맛있는 만두처럼 다양한 카툰으로 불교를 맛보고 즐기게 해줄 예정이다.

만만한뉴스 발행인 지찬 스님은 “그야말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에 다양한 재료로 만든 소를 담담 부처님의 말씀을 작가별 특색에 맞는 그림으로 담아 내놓게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마다 각각 다른 주제를 정해 작품을 전시 개성 있는 불교 작품을 보여줄 것”이라고 귀띔한다.

이번 전시에서 지찬 스님은 어러의 ‘힘내어라’라는 주제로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는 작품을, 김동범 작가는 햇살처럼 밝은 마음을 담은 카툰작품을 모은 ‘햇살’ 코너를 선보인다. 또한 양경수 작가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이 시대의 영웅으로 재해석한 ‘하이로드’ 시리즈를, 그리고 배중훈 작가는 ‘하얀 마음에 담은 절집’이라는 제목으로 운주사, 마곡사, 상원사 등의 아름다운 사찰을 나름의 색깔로 표현한 드로잉으로 선보인다.

지찬 스님은 “만만한 뉴스 창간 이후, 다

꽃미남으로 재탄생한 10대 제자 등 각각 다른 개성의 작품으로 표현

봉녕사에서 9월 17일~10월 4일

양한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기존의 여러 캐릭터를 통해 선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양경수 작가는 “불교 안의 영웅들을 찾아다니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다. 10대 제자 역시 천 명이 넘는 부처님 제자 중에 선정된 10명이니 영웅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 현대적 캐릭터의 꽃미남으로 표현해 젊은층들이 좀더 쉽게 10대 제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엔 양 작가는 사찰 전시인 만큼 꽃미남 10대 제자를 꼭자로 표구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만한 뉴스가 ‘만.두(만-DOO)전-맛있는 불교’ 전을 9월 17일~10월 4일 수원 봉녕사 소요상장 1층에서 연다. 작품은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지찬 스님의 ‘각각 어라’, 배중훈 작가의 ‘달, 절 하나’, 양경수 작가의 ‘십대제자(THE TEN-Part.)’, 김동범 작가의 ‘목욕제기’

김동범 작가는 “관수, 고행, 물소를 타고 가는 동자승 등을 통해 햇살 같은 존재의 부처님을 표현하고자 했다. 의미 전달보다는 선이 없는 그림을 통해 부처님의 존재를 별도로 찍는 듯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다.

배중훈 작가는 사찰에서 지낸 하룻밤을 드로잉으로 표현했다. 배 작가는 “이번엔 작품 중 ‘달 절 하나’는 간월암을 배경으로 바다에 달이 비친 풍경을 담았다. 어둠이 짙은 암자는 바다인지 하늘인지 알 수 없으니 경계가 없는 불어의 세계를 말하고자 했다. 다른 작품들도 사찰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대중들에게 휴식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특히, 배 작가는 이번 출품작 중 3 점을 10월 2일~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aaf2014’에도 선보여 한국의 선적 이미지를 유럽에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별 대표작품을 커피원두자루를 재활용한 에코백과 캐릭터가 들어간 핸드폰케이스 등의 아트상품으로도 전시 판매한다. 또 만만한 뉴스에 ‘템플라이프’로 연재를 하고 있는 김근아 객원작가가 선보이는 수제 양경도 소량 판매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수에 불화전... 9월 17일~23일까지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서

젊은 불화가 이수예의 개인전이 9월 17일~23일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1673년 조성된 장곡사 괘불의 상단 모사도와 조선 후기 괘불의 걸작 미항사 괘불 모사 등의 대작들을 선보인다. 특히 미항사 괘불은 제2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우수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지장시왕도, 화엄신중도 등 불교회화의 대표적인 불화들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볼 수 없



이수예 작가의 ‘연산화상도’

었던 지장천불도와 대홍사의 진영 3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프란시스코 교황 방한이 던진 화두는?’

불교평론 9월 18일 열린는단서 교황방한 문제 다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9월 18일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이창익 한림대 생사학연구원 HK교수를 초청해 ‘프란시스코 교황 방한이 한국종교계에 던진 화두’를 주제로 열리는 단을 개최한다.

불교평론 측은 “지난 여름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한 교황이 한국에 머문 시간은 100시간에 불과했지만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며 “대형 종교단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의면하지 말고도 주된 것 과 함께 광화문에서의 시복식 등 화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한국종교계와 한국불

교의 경우 과연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창익 박사는 이번 모임에서 발제를 맡은 이창익 박사는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종교학자다.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와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를 거쳐, 현재는 한림대 생사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있으며 주로 종교현상에 대한 분석적인 글을 써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초조대장경 판본 4건 보물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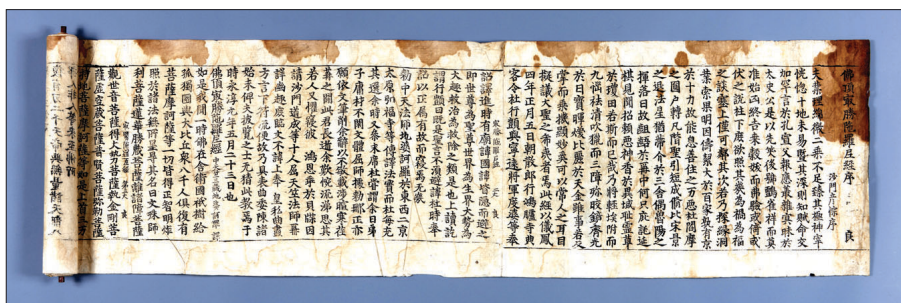
역경·간행 과정 담은 가치 지녀

고려 초조대장경 판본 4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월4일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佛頂取勝다라尼經)’을 비롯한 초조본 4건과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교문서’ 1건을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1101년) 거란 침입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팔공사 부인사에 보관되어왔지만 모두 소실돼 현재 판본만이 전해진다.

이번에 지정된 초조대장경 판본 중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佛頂取勝다라尼經)’과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법찬(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은 현재 전해지는 것이 없는 유일본이다.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은 초조대장경의 다양한 장차표시(張次表示)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불교학과 서지학



보물로 지정예고된 초조대장경 판본 불정최승다라니경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법찬’은 권말(卷末)에 기록된 증의(證義), 필수(筆授), 철문(綴文), 증법문(證梵文), 증법의(證梵義), 운문(韻文) 등 역경과 관련된 참여자 명단 등 초조대장경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 ‘초조본 법원주림 권82(初雕本 法苑珠林 卷八十二)’와 ‘초조본 불설일체제래

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양경 권4(初雕本 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教王經 卷四)’는 초조대장경의 판각이 일단락된 1087년(선종 4) 이후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수집·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된 불전(佛典)이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교문서’는 공신의 녹훈(錄勳)을 파악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통도사성보박물관 전각반 첫 회원전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 전각반 첫 번째 회원전 ‘영취산에 돌꽃피다’가 9월 17일~10월 12일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회원들의 작품 20여점과 실인(眞印)을 함께 전시한다. 작품에는 무념위중(無念爲宗), 상수불학(常隨不學), 세계일화(世界一花) 등 불교관련 구절과 한시(漢詩)의 유명한 구절이나 효(孝)에 관한 작품 등 다양한 내용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사연구’ 여름·가을호 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한국불교사연구’ 2014년 여름·가을호를 발간했다.

여름·가을호에는 △고운기 한양대 교수의 ‘권상로와 삼국유사’ 기획논문을 시작으로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육당 최남선의 삼국유사 인식과 <삼국유사 해

제’ △김성주 동국대 교수의 ‘무애 양주동의 <삼국유사> 향가 인식’ △동국대 해인 스님의 ‘인도 세친(아비달마구사론)의 지각이론 연구’ △고상현 박사의 ‘연등회의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강화방안 연구’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우리 그림과 불교미학의 접합점은?

불교문예연구소, ‘불교문예연구’ 제3집 발간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최근 ‘불교문예연구’ 제3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은 ‘우리 그림과 불교미학의 만남’과 ‘만해의 심우장 세계’ 2개 주제 특집으로 구성돼 있으며 논문으로 △지미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고려 수월관음도의 대나무 도상에 관한 고찰’ △조정옥 미술평론가의 ‘단원 김홍도의 화풍에 나타난 불교 미학의 세계’ △백원기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추사의 제한도

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진철문 동국대 강의교수의 ‘장욱진의 그림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의 ‘일제강점기 후반 불교계의 동향과 한용운의 불교사상’ △김성연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의 ‘1930년대 한용운의 불교개혁론과 민족의식 고취’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의 ‘1930년대의 문화지형과 한용운의 삶’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font-weight: bold;">만 월 등</p>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font-weight: bold;">바 림 등</p>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font-weight: bold;">자 비 등</p>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font-weight: bold;">팔각주름등</p>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font-weight: bold;">공 단 등</p>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font-weight: bold;">팔각접등</p>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font-weight: bold;">연꽃만월등</p>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font-weight: bold;">연 화 연 등</p>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font-weight: bold;">차 길 이</p>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인 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